

해양 플라스틱 저감대책 효과 있을까

행정시별 하천변 중심 수거계획 수립 집중호우시 바다 유입 차단책은 전부

제주자치도가 전 세계 해양쓰레기의 80%를 추정되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키로 했다.

제주도는 2018년 대비 2022년까지 30%, 2030년까지 50% 저감하는 정부의 해양 플라스틱 감축 목표에 따라 플라스틱 저감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해양 플라스틱은 해양생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이중 의도적으로 제조되었거나 기존 제품이 조각나서 미

세화(1mm~5mm 미만)된 합성 고분자 화합물인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에게도 잠재적인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는 우선 도내 해양쓰레기 정화주간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해 전도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기로 했다.

또 도내 육상에서 하천을 통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시별로 수거 계획을 마련해 시행토록 했다.

특히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약 53%를 차지하는 페어구·페부표의 회수에 주력하고 수거실적이 우수한 어촌계에는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어항기 등 일정 기간에 페어구를 집중 수거 하는 등 지역민이 참여하는 수거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자율관리공동체, 어촌체험마을 선정시 수거 실적이 높은 어촌계에 가점도 부여할 계획이다.

하지만 집중호우시 도내 육상에서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은 전무해 해양 플라스틱 감축은 한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해양쓰레

기는 청정바다지킴이와 어업인, 단체들이 수거를 해서 해안도로쪽에 보관해 두었다가 각 읍면동에 있는 중간집하장으로 이동을 한 후 전문처리업체에서 분리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다"며 "환경자원순환센터안에 해양 쓰레기에 묻은 염분과 이물질 제거하는 해양쓰레기 처리시설이 완료되면 2021년부터는 현재 육지부로 반출하고 있는 해양쓰레기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도 제주도내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1만2412t으로, 이중 25%는 자체 처리를 하지 못해 육지부로 반출됐다.

고대로지자 bigroad@ihalla.com

오늘의 날씨와 생활

6월 14일 금요일 음 5월 12일 (4물)

기상정보

흐리고 비



오전	강수 확률	오후
60%	제주	60%
60%	성산	60%
60%	고산	60%
60%	서귀포	60%

주간예보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림	19/23°C
모레	맑음	19/24°C

제주도 남쪽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낮부터 밤까지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9~20°C, 낮 최고기온은 23~24°C가 되겠다. 비가 오는 지역에는 안개가 끼어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많겠다.

해돋이 05:23	달뜨기 16:37
해질미 19:45	달지기 03:10
물때	간조 02:38
	21:20
	14:53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경고	보통

전통시장 감시다!!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7
한림민속오일장	4.9
세화민속오일장	5.10
함덕오일장	1.6
고성오일장	4.9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서귀포향토오일장	4.9
성산오일장	1.6
중문향토오일장	3.8
표선오일장	2.7
대정오일장	1.6

"화순리 LNG화력발전소 계약 파기·진상규명하라"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두달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소재 LNG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불공정 계약과 불법행위가 자행됐음을 확인했다"며 "건설하고 바른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진상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남부발전과 포스코건설은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화순리 장에게 인력·장비 배차 권한을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

했다"며 "화순리장은 상기 공사의 인력을 투입할 능력과 공사에 필요한 장비회사를 운영하지 않는데 이러한 특혜를 준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남부발전과 포스코건설은 적절한 견적이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화순리장이 요구하는 특정업체와 고단가에 계약한 사유를 밝혀달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정식 수사요청과 관련 부처의 즉각적인 진상규명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LNG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은 제주지역 여름철 전력 예비율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갑질 논란 교수 기소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전 제주대학교 교수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 제주대 교수 A(58)씨를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해당 학교 조교수 B(46)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16년 4월 제주시 아라동 소재 자신의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내부 인테리어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듬해 1월에는 제자들이 공모한 작품이 '디자인 어워드'에서 동상을 수상하자 자신의 아들 이름을 수상자 명단에 포함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도 승은변기자



이정표 구멍에 사는 붉은부리찌르레기 13일 제주시 환경면 용수리 인근 도로 이정표 구멍에 동지를 틈 붉은부리찌르레기가 새끼에게 먹이를 주고 구멍으로 나오고 있다. 강희만기자

한국은행 제주지역 실물경제 동향 분석결과

건설 부진 지속... 관광분야 소폭 개선

5월 소비자물가 소폭 오름

제주지역 건설 경기는 지속적으로 부진한 반면 관광 경기는 최근 들어 소폭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13일 발표한 '최근 제주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1/4분기중 도내 신용카드 사용액은 숙박업소와 음식점 매출 증가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

다 5% 늘었다. 다만 5월중 소비자심리지수는 가계 수입 전망 부진 등으로 전월 대비 3포인트 하락한 98.4를 기록해 기준치를 밑돌았다.

이 기간 건축 착공면적은 지난해 동기 대비 35.8%, 건축허가 면적은 38.3% 줄어 지난해부터 이어진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월 중 관광객수는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세에 힘입어 전년 같

은 기간보다 1.2%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이 63.1% 늘어난 것에 비해 내국인 관광객은 해외 여행 증가 영향으로 3.4% 감소했다.

4월중 농산물 출하액은 무, 양배추 등 채소 가격 하락으로 감소했으며, 수산물 출하량도 감치를 중심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기간 제조업 생산은 음료업 호조에 힘입어 증가했다.

또 4월중 수출액은 전기·전자제품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 비중이 큰 폭 늘어난 영향으로 하락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됐다. 반면 수입은 감소세로 바뀌었다.

5월중 취업자수는 농림어업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1만1000명 증가했다. 고용률(68.1%)은 전년 동기과 같았고 실업률(2.6%)은 1.0%포인트 상승했다.

5월중 소비자물가의 오름폭은 소폭 확대됐으며 이 기간 주택매매 가격은 보합을 유지했지만 아파트매매 가격은 완만한 하락세를 지속했다. 또 4월중 토지가격 상승률(전월대비)은 전월과 동일할 0.1%를 기록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탐라문화광장 3곳 대상 야간경관 조명시설 보강

제주시는 탐라문화광장 3개소(탐라·복수구·산포광장)에 설치된 야간경관 조명 시설물에 대해 보강 공사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사업비 1억4000만원을 투입해 탐라광장 야간경관 조명등, 복성교 교량 포인트조명(LED), 산포광장 라인조명을 정비한다. 김현석기자



제9회 제주도 전주강씨 한마음축제

일시: 2019년 6월 16일(일) 오전 10시부터 / 장소: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우천시 실내주차장)

도총회장
강원희

도청년회장
강영로

행사일정

- 1부행사 10:00 ~
 - 점심식사 상시운영
- 2부행사: 이벤트 행사 진행 및 노래자랑 13:00 ~
- 시상, 경품추첨 15:00 ~
- 개회식 11:00 ~
- 폐회 15:30 ~

· 진주강씨 총정공파 제주도 종친회장(강명철), 청년회장(강봉재) · 진주강씨 제주염통악파 종친회장(강만희), 청년회장(강경문)

· 진주강씨 정랑공파 문중회장(강길현), 청년회장(강창균) · 진주강씨 제주도 부인회장(이혜연)

※ 문의: 사무국장(강남규 010-8660-0096), 총무부장(강봉석 010-3697-4847)

주최 | 진주강씨제주도총회 명예대회장 강원희 주관 | 진주강씨제주도청년회 대회장 강영로